국경없는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3





(사)국경없는교육가회 2013 연간보고서

발행 (사)국경없는교육가회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9길 23 삼모스포렉스 1014호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

발행일2014년 3월발행인김기석

© 2014 Educators Without Borders All rights reserved.

목차

I.	연간보고서 발간사 1
II.	활동보고 2
	1. 광명시 GAPA 사업 참여 ······ 2
	2. 서울대 AT(Appropriate Technology) 융합사업······ 3
	1) EWB-SEWB GAPA 사업지 방문 ······ 3
	2) 빗물 전문가 한무영 교수 GAPA 모니터링·································· 5
	3) 부르키나 파소 DAO 박사 초청 연수······ 7
	3. GAPA 공동협의회······ 8
	4. EWB-서울대 KENYA 교원역량강화사업과 컴퓨터실 개관식 13
	5.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착수 19
III.	EWB 소식 21
	1. 간사 파견 21
	1) 부르키나 파소: 성소현, 김민서 간사 21
	2) 케냐: 고수진 간사 21
	2. UNEP(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엑스포 참가 21
IV.	2013 년 세입 정산 세입 세출 보고~~~~~ 25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27
VI.	후원자 명단 28

I.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3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UN이 정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시했고, 국제사회는 각 국가의 개발계획에 부응할수 있는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전히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일곱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기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3년 장기지원 사업으로 성장하였고 광명시와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사업, 인도네시아 교육사업타당성 조사, 케냐 교육사절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교사 연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 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국경없는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 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 (사)국경없는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경영기획부 팀장 전일구 협력사업부 팀장 박수정

田. 활동보고

1. 광명시 GAPA 사업 참여

국경없는교육가회와 광명시는 2013년 3월 1일 부르키나파소 교육부 청사에서 김 기석 대표와 양기대 광명시장, 쿰바 볼리 바리 부르키나파소 교육부장관이 참석 한 가운데, 부르키나파소 성인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삼자간 업무협약(MOU) 을 체결했다. 13년에 이어 14년에도 이 협약이 계속되며, 이와 함께 청소년 및 문 화 등의 분야에서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기로 했다.





MOU 체결

기공식

이번 MOU 체결은 부르키나파소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볼리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11월 '국경없는교육가회'(EWB, 대표 김기석 서울대교수)를 통해 광명시에 평생학 습 지원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광명시는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부르키나파 소 Saaba 지역에 건립될 평생학습관의 기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위한 ICT 기자재 를 지원하며, 양돈사업 연수 프로그램 개발, 현지 지도자 역량강화 과정 등의 평 생학습 운영 노하우와 교육 컨텐츠를 지원하게 된다.





광명시 지원 기자재

2. 서울대 AT(Appropriate Technology) 융합사업

1). EWB-SEWB GAPA 사업지 방문

EWB와 SEWB(Scientists and Engineers Without Borders,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는 서울대 AT 융합연구의 지원을 받아, 2013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5박 7일간 교육부문과 과학기술부문의 융합을 통하여 통합적인 개발협력모델(Integrated Development Partnership Model)도출을 위해 부르키나파소 GAPA 사업지를 방문하였다.

2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여 APENF(비형식교육진흥회) 활동 내용 및 향후 사업 전 망을 보고받고, Saaba 지역 APENF 본부 및 교사연수시설 설립 부지 방문, 현지생활환경 조사 교사연수 및 기술연수 컨텐츠를 논의하였다.

3일에는 Gando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4일에는 쿰바 볼리 바리(Mrs. Koumba Boly Barry) 문해교육부 장관을 면담하여 문해교육정책 및 비전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5일에는 환경농업연구소(Environment and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를 방문하여 농업연구 및 적용 실태를 파악하고, 응용과학기술연구소(Institute for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도 방문하여 지역개발지원 과학기술연구개발 현 황 파악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사업지 방문을 통하여 부르키나 파소 우선지원이 필요한 적정과학기술분야 파악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소득증대 모델 및 문해 교육과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는 기술교육의 제안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함께 나아갈 비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2) 빗물 전문가 한무영 교수 GAPA 모니터링

"하늘에서 내려온 깨끗한 공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빗물을 마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빗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마실 수 없다, 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은 빗물처리 전문가인 한무영 교수님의 부르키나 파소 방문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다. "빗물은 산성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마시



는 오렌지 주스나 과일보다 훨씬 낮 은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가 떨어지면 입을 아- 벌리고 빗 물을 마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 리는 그렇게 깨끗한 빗물을 그냥 흘 러가게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하늘에 서 떨어진 빗물을 바로 받아서 마시 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한무영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 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설 명이었다. 2013년 7월, 국경없는 교 육가회 출장팀과 파견 간사들, 한무 영 교수 내외는 빗물 식수를 알리고 빗물탱크 설치 사전조사를 하기 위 해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사업장들을 방문했다.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에서 물 관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사업장 중 Leo의 Worou 마을 주민들은 특히 물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은 물을 길어오는데 1-2시간을 소요한다. 남성들은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가나로 목축이동을 해야만한다. 매번 집을 옮겨가며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생활에 지쳐있다.

한무영 교수는 Worou 마을의 주민들 앞에서 빗물탱크 설치 과정을 설명하는 프 랑카드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탄자니아 초등학교에 빗물탱크를 설치한 사례를 들며 가정에도 간단하게 탱크를 설치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주민들은 여 느 때 보다 더 집중하며 한 교수의 설명을 들었다.

한 교수의 빗물탱크 원리는 다음과 같다. 비스듬한 양철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튜브를 통해 작은 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관 속에는 작은 공이 들어가 있어 이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가득 차게 되면 공이 관의 구멍을 막게 된다. 이제막힌 관으로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깨끗한 빗물이 탱크로 들어가게 된다. 탱크의크기는 필요에 따라 크고 작아질 수가 있으며 탱크의 아래에는 수도꼭지가 있어주민들은 편하게 깨끗한 빗물을 받아 마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탱크 안의 수위를 알 수 있는 추가 있어 수위에 따라 물의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지인들이 직접 물탱크 설치를 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사업장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로 물탱크가 전파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장 방문을 모두 마치고 한 교수와 국경없는 교육가회 일원은 부르키나 파소의 교육부 장관인 Boly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 한 교수는 빗물탱크의 원리를 설명하고 빗물의 상업화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Boly 장관은 2014년 부르키나 파소의 초등학교 식당에 빗물탱크 설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만남을 마무리하였다.

3) 부르키나 파소 DAO 박사 초청 연수

부르키나 파소의 농업전문가인 Madjelia Dao Some 박사는 서울대 AT 융합연구의 지원을 받아, EWB의 초청으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간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농업연수를 받았다.



농업수업



아침운동



수료식



프로젝트 발표

연수의 내용은 유기 농업과 지역개발, 친환경 농업 퇴비 시스템, 새마을 운동 전략, 가나안 정신 운동, 농업 실습 등이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운동으로 시작되는 연수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지는 다소 바쁜 일정이었다. 하지만 Dao 박사는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매우 적극적으로 구상했다.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풍부하고 이해가 높아서 앞으로 부르키나 파소 농업분야의 기술 적용방안이 기대가 된다.

3. GAPA 공동협의회

1) 저반기

2013년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와가두구 소재 감비디 컨퍼런스 홀에서 EWB와 APENF 간의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공동협의회 첫째 날은 GAPA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4개 지역(사바, 부세, 보보, 레 오)의 활동가들이 상반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구두 보고 및 사업 수행 시 장 점과 강점 및 부족한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수준 있는 교사 고용이 어렵고 고정적인 교 육시설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사회적 인식 부 족으로 문맹퇴치교육 및 소액대출을 통한 경제활동 창출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는 것이었다. 장점으로는 EWB와 APENF 간의 긴밀한 유대 관계 및 재정지원 통 로의 확장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공동협의회 모습



그룹별 토의

협의회 둘째 날에는 회의 첫날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점에 대한 그룹토의 시간을 갖고, 각 그룹별로 해결책 및 대안을 구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때 나온 내용으로는, 교사 고용 시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적합한 인물을 고용하여 수업 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것과, 소액대출 예산이 부족하여 원활한 운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지역단체에 대해서는 면밀한 평가 후 예산 상향 조정을 고려해보 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 밖에 현지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컴퓨터 교 육과 현지 주민에 대한 장기 근접 모니터링 및 GAPA 사업 수혜자 사례발표 대회 개최 등에 대한 제언이 EWB 현지 간사와 한국사무소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소액대출을 통해 잡화상 운영

이번 2013 상반기 공동협의회는 EWB와 APENF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GAPA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조망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소액대출 경영관리와 같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2) 하반기

12 월 10 일부터 약 10 일간 2013 년도 GAPA 사업 하반기 공동협의회 및 사업지 방문을 위해 부르키나 파소를 방문하였다.

이번 출장의 첫 일정으로 Bobo-Dioulasso 지역을 방문하였다. 지역 OP 를 만나 한 해 동안의 사업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업장에서 1~2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르키나 파소의 댐을 방문했다. 1960 년대부터 프랑스와 미국의 대규모 원조로 댐을 건설하여 마을 곳곳으로 파이프수로를 연결하였고 인근지역에 농업원조를 통해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출장팀을 안내한 댐 관리자는 실제로 댐 안으로까지 발을 담궈 깊이를 보여줄 만큼 열정적으로 댐과 수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설명했다. Bobo-Dioulasso 지역에서 10 여 년 이상을 거주하며 지역 내 청소년과 수감자 교육에 힘써온 현 부르키나 파소 한인회 김윤석 부회장을 만났다. 수년 간 직접 가꾸어 오신 텃밭을 방문하였다. 밭마다 15 미터 이상의 우물을 파서 농업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하였더니, 척박했던 토양의 질이 달라지고 푸르른 채소들이 쑥쑥 자랄 수 있게 되었다.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부르키나 파소에서 볼 수 있는 흙은 모두 붉은 색을 띄는 적토이다. 출장 기간 동안 방문했던 텃밭은 배추, 무부터 많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고 토양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비옥했다.





보보 인근 지역의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



1960 년대 지은 댐



1970 년대 설치한 농업용수용 파이프



텃밭 곳곳에 설치한 우물



15 미터 이상 파인 우물 농업용수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



농장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보보디울라소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수도인 와가두구로 돌아와 공식적으로 공동협의회를 시작했다. 협력기관 APENF 의 아나톨 회장, 제르멘 지부장 및 관계 스태프들과 각 마을지역 OP, 그리고 국경없는교육가회 본부와 현지 스태프가모두 모여 상반기 협의회 당시 논의되었던 제안점 반영 여부 및 2013 년 하반기

동안의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2014 년 사업 방향 및 운영 계획도 함께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함께 자리한 APENF 아나톨 회장이 부르키나 파소 국민보다 더 열정적으로 본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한국과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노력에 부흥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르멘 지부장과 지역 OP 들도 상, 하반기 사업 진행을 통한 모범사례를 뽑아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어려웠던 점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서로 나누었다. 부르키나 파소 기초문해교육부 소속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글로벌교육개발협력 협동과정에서 장학생으로 석사과정을 진행 중인 Kyelem Serge 가 함께 자리하여 2014 년에 진행될 한국연구재단(NRF)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공동협의회에서는 특히 문해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투명한 소액대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지역 지도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의 필요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현지의 수요를 2014 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로 계획했다. 단순히 국경없는교육가회만의 사업이 아니라 함께 운영해가는 공동의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한국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부르키나 좌소의 교육발진을 위해 수건동안 보려해주어 감동이다. 모임사에는 공유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진 최신을 다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인제까지나 EWB 만을 의지할 수 없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GAPA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자"

-APENF ANATOLE 회장, 하반기 공동협의회에서-



공동현의회 모습



2014 년 진행사업에 대한 발표- Serge

4. EWB-서울대 KENYA 교원역량사업과 컴퓨터실 개관식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2013년도 과제인 '대학과의 파트너십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 서울대-EWB의 'Quality EFA를 위한 케냐 교사역량강화사업'을 완수하였다. 2012년 12월에 시작되어 케냐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사업은 교사들의 ICT 활용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상반기에 진행된 케냐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사업의 주요 수혜자가 될 현직 케냐 교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이다. 서울대 대학원 글로벌교육개발협력학과와 EWB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현지에 상주하며 노력한 결과나이로비 시내에 위치한 FAWE(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본부에 45명 규모의 강의실을 구축할 수 있었고, ICT 연수를 통해 500명이 넘는 현직 초, 중등 교사들을 ICT의 세계로 안내했으며 추후 교육 관련 공무원 등으로 연수 대상을 확대하였다.

컴퓨터를 켜는 것부터 시작하는 Basic 코스와 교육현장에서의 ICT 활용 방안을 안내하는 Advanced 코스로 나눠 준비한 연수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컴퓨터를 거의 접하지 못한 초보자들이어서 초기 4 차 연수 중 3차가 Basic 코스로 진행되었 다. 마우스를 잡은 손은 어색하고, 더블 클 릭은 그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참가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더 배우고자 노력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연수를 위해 2시간여를 버스에서 씨름하며 오는 중년의 선생님도 있었고, 수업 후에 는 3시간 넘게 진행되는 연수에 지쳤을 법 도 한데 대부분 자리에 남아 연습을 계속 했다. 배우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젊 은 선생님들은 일손이 모자라 바쁘게 움직 이는 팀원들을 위해 동료 선생님들을 열심



히 도와주었다. 연수 시작 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연수 시간이, 이들의 열정 앞에 너무도 짧게 느껴진 순간이었다.

11월에는 컴퓨터교육실의 개관식을 위해 김찬우 주케냐 대한민국대사, 최문정 한국국제협력단(KOICA) 케냐사무소 소장, 킬레미 미리아 전 케냐 교육부 차관, 피터미아노 케냐 정부 대표, 헨드리나 도로바 FAWE 지부장, 캐서린 FAWE 케냐 챕터디렉터와 케냐 현지 교원을 대표하여 스테픈 오딧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뿐만 아니라 개관식 오전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 김기석 대표가 케냐 현지의 교장(Headmaster)들과 교육정책가, 현지 교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교육발전경험에 대한 강의를 하여 케냐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를 가졌다.



김찬우 주케냐 한국대사



현직 교원대표 스테픈 오딧





현판 기념촬영

컴퓨터실 연수 모습

김찬우 주케냐 대한민국 대사는 과거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계속될 케냐의 발전을 기원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다. 또한 헨드리나 도로바 FAWE 지부장은 케냐에서의 ICT 중요성뿐 아니라 더 나아가 ICT를 이용한 성평등교육를 위해 더욱 애쓸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나누었다. 현지에서 연수를 받은 현직 교원대표 스테픈 오딧씨는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말솜씨로 청중을 사로잡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전부터 시작된 개관식에는 케냐 현지 기자들과 TV채널에서도 취재를 나와 ICT 활용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협력기관인 FAWE와 꾸준한 협력을 통해 ICT 기자재의 운영 및 관리를 계속해나 가며 화상 회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Kilemi Mwiria

Development Consultant The Kimkam Foundation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and Forum for African Women Educationalists (FAWE) Partnership on Teacher Capacity Building in Computer Application.

I was fortunate to be invited to two workshops where EWB and FAWE celebrated the successful launch of the computer-training programme for Kenyan secondary school teachers.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its development agency, KOICA, funded this project through a partnership with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those two events, I congratulated the two partners and explained the value of the programme for Kenyan teachers, their students and communities at large as follows:

- 1. This partnership supports the Government of Kenya (GOK) Kenya's Vision 2030. ICT is a key element of this vision. This is why the Kenya government is investing in one laptop for every primary school child starting next year. In addition, every secondary school will have at least one computer laboratory in the next two years or so. GOK is aware that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e developed countries of the world and developing ones such as Kenya is the digital divide. Likewise, a key difference between rural schools and those for privileged kids in urban areas and their teachers is the same digital divide. By narrowing this divide, we improve every Kenyan young person's chances in life.
- 2. The Republic of Korea has experienced so much development not only because of investing in education in general, but also more because of exposing Korea's youth to the benefits of ICT early in life. It is in this context that this KOICA initiative will go a long way in supplementing Kenya government efforts in the promotion of ICT and will open up computer skills to teachers and students who would otherwise not have had that opportunity. In fact, the Kenyan students so exposed could easily profit from employment opportunities in Korea and

elsewhere in the developed world if they use this knowledge to adequately prepare themselves for global competition.

- 3. The project's focus on the teacher is most appropriate given that it is teachers who are best placed to spread the message of the ICT revolution. To do this they must first understand the workings of a computer. This project opened the eyes of participating teachers going by the testimonies that they gave during the closing ceremonies. They are now much more confident of what the computer training has made possible for them.
- 4. Our students and teachers will find basic knowledge of computers crucial for the learning of virtually all subjects. For example, in English the computer can facilitate grammar and editing skills' improvement. In arts and crafts computer applications enable students to do an infinite number of designs while in science there is much knowledge condensed in relevant science teaching packages. Knowledge of computers also serves to demystify the computer among students and teachers who had never seen one while motivating them to ask more questions.
- 5. For the participating head teachers, computers will facilitate efficient storage and retrieval of information on pupils and staff as well as records of institutional assets and liabilities. Some of the packages they learned will prove vital teaching aids and will support the preparation of timetables that can be modified depending on changing needs.
- 6. But they will also realize more personal benefits. They can do their work plans, set examinations and explore business and training opportunities using the knowledge they learned. They can also benefit their neighbours as long as they have access to a computer in either a school or the newly established constituency/village digital centres.
- 7. Because the schools where the participating teachers come from have computer laboratories (or will have one soon), there is the additional opportunity

to benefit from access to the Internet. Here the idea of the computer as the best equalizer will be apparent because a child in rural Kenya will have access to the same information available to a child in Seoul, Tokyo or New York; and at the same time.

- 8. Consider too, the possibilities this could open for student inter-institutional exchanges, which reduce inequality that has developed between the rural and urban and/or the private and public schools. Internet facilities to schools delimit the amount of resources available to students as it enables access to global resources on any topic, while further opening them up to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a global setting.
- 9. Moreover, with Internet links (and a possible network of schools), teachers and students of different schools can share limited learning resources, examinations, science experiments and notes on topical issues. For example, a single teacher with a solution to a difficult mathematical sum can share her knowledge with colleagues in many schools.
- 10. Additionally, networked school administration systems will enhance competence levels in our schools. School heads and staff from different schools who can rarely meet at the present would be a button away from experience sharing on curriculum and related matters, replacing the present over-reliance on hard copy ministry directives.
- 11. Finally this project was of immense benefit to both EWB and FAWE. For EWB, young Korean researchers were able to learn from Kenya. They have African experience they never had before the project, which is good for their careers. For FAWE, the project helped to enhance the organization's visibility and expanded its network of partners.

I am hoping there will be a larger second phase of this very worthwhile initiative. I am happy I was part of it in one way or the other.

5. 교육부-한국연구재단 글로벌교육지원 사업 착수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의 2013 년 글로벌교육지원사업의 교육협력분야 과제로 선정되었다. 11 월부터 착수한 이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개의 단위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단위 프로젝트는 문맹퇴치 교육과정과 교재의 표준화와 교원연수이다. 부르키나 파소 정부는 그동안 비형식교육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형식교육을 추진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민간단체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24 개의 교육과정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국가 기구나 민간단체 문맹퇴치가 통합되지 못하고 표준화된 것이 없어 통합적인 문맹퇴치 캠페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현지에 맞게 통합된 교육 및 평가과정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 파트너들과 정부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표준 교과과정 개요, 교재, 교사 지침서 등을 수정 보완하여 수준 높은 문맹 퇴치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2013 년 12 월, 부르키나 파소 기초문해교육부 소속 공무원 Kyelem Serge 는 현지의 'Reflect Method' 구현 현황 파악과 문제점 등을 심층 조사를 착수하였다.



비형식교육증진회 지부장과 인터뷰하는 모습

두 번째 단위 프로젝트는 소액대출 경영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자 연수로,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지난 3 년간 시행하고 있는 소액대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진과 자력갱생에 긴요한 대출금 회수율의 관리 방식을 조사, 평가하여 새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의 투명하고 능률적인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소액대출 관리 매뉴얼을 이용하기 쉽게 보완하고 엑셀 관리 서식, 회수율 계산 공식 등을 개발 활용하여 투명 운영에서 회수금 재투자로 발전할 수 있는 경영기법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대출-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소액대출 전문가와 협력하여 관리 경영 지도자를 대상으로 자력갱생 역량강화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Ⅲ. EWB 소식

1. 간사파견

1) 부르키나 파소 현지 간사 파견

성소현, 김민서 간사는 2013 년 5월 28일 오전 9시 부르키나 파소로 출국하여 현지시간 28일 오후 8시에 도착하였다. 현재 두 간사는 부르키나 파소에서 EWB 사업 코디네이팅, 모니터링 수행 및 지역사회 개발 자료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케냐 현지 간사 파견

고수진 간사는 2013 년 5 월 18 일 오후 9 시 20 분 케냐로 출국하여 현지시간 18 일 새벽 5 시에 도착하였다. 현재 고수진 간사는 케냐타 대학(Kenyatta University)과 MOU 체결 이후 ICT 사업 진행, 교원 연수 워크샵, 현지에서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UNEP(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엑스포 참가

10월 28일에서 11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국제 연합 환경 계획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주최로 케냐 나이로비 UN 본부에서 열린 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에 참가하였다. "Solution Exchange Forum" 형식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국가 정상들과 개발협력 기구를 대표하는 지도자 및 실무자들이 모여 녹색 경제, 녹색 산업과

기술, 농업과 식량 보안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 ICT, 환경, 여성과 건강 그리고 빈곤퇴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Expo Exhibition 에서 부스를 할당 받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UNDP 지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3 개국 교육리더십 역량강화사업 홍보 및 지난 4 년간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서 진행해온 농촌여성 자립역량강화 프로젝트의 과정과 그 효과를 널리 알렸다. 개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파트너십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Forum 진행



EWB 사업에 대한 홍보



행사장 내 EWB 부스



세계 각국 관계자들이 모여 협의

BOOK I Poverty Reduction Project

1. EWB

- (1) The Mission of EWB
- (2) 2012 Annual Report of EWB

2. GAPA

- (1) What is GAPA General Intro
- (2) Movie: Dev of GAPA, 2007-2014

3. KAD

- (1) Why KAD (Korea-Africa Day)
- (2) Korbil's Introductory Note
- (3) Presentation Slides

Plenary Session

- 1. National Development &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 2. Role of S&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Case of KIST

Samsung & Korean Vice minister

- 1. Dynamic Koreal: The Past and Future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2. Impact of ICTs and Innovation in Education

Session 1

- 1. N I L E(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2. Empowering the Women in Poverty and HIV/AIDS Vulnerability for Self-reliance in Burkina Faso

Session 2

- 1. Evolution of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 2.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ession 3

- 1. Development, Achievements and Cases of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Korea
- 2. Planning and Developing National Policy for ICT in Education
- 3.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in Korea

Others

1. Make Learning for All a reality

- 4. Kenya
- (1) Concept
- (2) Video by Head Teacher Sunny Kim
- 5. Peer Review for Capacity Development of Educational Leadership in Africa

BOOK II

Formal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 1. Selected Writings from Development and Education
- Dr. Bom Mo CHUNG
- (1) From Ashes to Affluence
- (2) The Nation
- (3) The Power of Education
- 2. Japanese Colonial Education as a Contested Terrain
- Dr. Seong-Cheol OH & Dr. Ki-seok KIM
- 3. Making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Dr. Ki-Seok KIM
- 4. Tertiary Education For All
- Dr. Ki-Seok KIM & Dr. Hwanbo PARK

BOOK III

Non-formal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

- 1. The Origins of New Village Movement (NVM)
- Dr. Jin Hwan PARK
- 2. My Lifelong Fight against Extreme Poverty in Korea
- Dr. Yong-Ki KIM
- (Some photos on Dr. Y K KIM)
- 3. Adult Education in Canaan Famers' School for Poverty Reduction
- Dr. Ki-Seok KIM

IV. 2013 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3 년 결산 보고 (단위:원)

2013 년 수입	2013 년 지출	당기수익
423,346,923	301,605,275	127,741,648

2. 2013 년 수입 결산 (단위:원)

관	항	목	2013 년	비고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67,675,898	
	정기후원금		46,457,551	
후원금	부정기후원금		23,346,000	
	소계		137,479,449	
		gapa (Koica)	80,096,800	
	사업수입	광명시 평생학습관	86,464,400	
UMAN		UNDP	531,000	
사업수입		청년인턴	62,434,691	
		청년캠프 및 교사연수	-	
	소계		229,526,891	
	이자수입	이자	51,764	
잡수입	기타수입	기타	56,288,819	케냐 및 융합사업
	소계		56,340,583	
	합계		423,346,923	

3. 2013 년 지출 결산 (단위:원)

	ul ¬			
관	항	목	2013 년	비고
		GAPA(KOICA)	49,333,090	
		GAPA(자체자금)	27,279,750	
	사업활동비	광명시 평생학습관	75,013,023	
협력사업		UNDP	6,677,446	
		케냐 및 융합사업비	63,496,255	
		청년캠프 및 교사연수	-	
		소계	221,799,564	
		인건비	15,045,209	
		청년인턴	50,031,863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사무국운영비	13,286,349	
경경기획 		퇴직 적립금	,140,000	
		기타	302,2901	
		소계	79,805,711	
합계			301,605,275	

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국경없는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도국 교육발전 을 위한 유엔 MDGs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자 합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후원 및 후원 문의

- 1. 후원금: 농협) 079-01-468104 (사)국경없는교육가회
- 2. 회원가입 및 문의 : http://www.ewb.or.kr
-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VI. 후원자 명단

• 만민교육 후원자

노정혜, 다비육종(윤희진), 이현, 한국교육사고

• 빈곤퇴치 후원자

김기석, 일가재단, 정영일

• 질병퇴치 후원자

김활란, 류방란, 박종규, 손다혜, 손영우, 임선화, 정진화, 학지사(김진환)

• 문맹퇴치

강선미, 강일국, 고소향, 고아라, 고혁준, 고형은, 길혜지, 김경일, 김명진, 김봉숙, 김성수, 김성식, 김성열, 김수빈, 김어진, 김윤호, 김을숙, 김주립, 김주선, 김주훈, 김준엽, 김지수, 김진이, 김태석, 김태윤, 김현숙, 남성희, 남신동, 남영선, 류한구, 문경도, 문삼은, 박근아, 박성호, 박순경, 박신애, 박에스더, 박영희, 박지선, 박철희, 박태훈, 박환보, 서화련, 설유경, 성기선, 손유미, 송진웅, 신봉철, 신선미, 신정철, 안상길, 양길석, 양병표, 양은성, 양희준, 여영기, 오성철, 오은빈, 우병열, 유성상, 유지은, 유하경, 이광수 이기정, 이미화, 이보연, 이선정, 이승환, 이윤복, 이재열, 이재찬, 이정숙, 이정아, 이종복, 이차권, 이찬희, 이태주, 이한별, 이향규, 이현정, 이혜정, 이호영, 임후남, 장봉훈, 장용훈, 전종갑, 정미란, 정복희, 정봉근, 정양선, 정운찬, 정일선, 정재환, 조동성, 조상식, 조예슬, 조정아, 조혜승, 주현일, 차승주, 최윤서, 최일선, 최채기, 허병부, 홍문숙, 홍미경, 황지원.

 만민교육 1,000 만원 이상, 빈곤퇴치 500 만원 이상, 질병퇴치 100 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 원 이상

(사)국경없는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